한덕수 인사청문회 이틀 파행 끝 산회

여야 자료 제출 놓고 날 선 공방
다음달 2~3일로 일정 변경 합의
민주, 내각 후보자들 의혹 총공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결국 파행으로 귀결되면서 청문 정국의 첫걸음에서부터 여야의 협치 기조가 삐걱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야 측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30분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새 정부의 총리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후보자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하라는 것을 국회의 책무로 맡기셨다"면서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인가,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인사청문회만 있으면 정책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신상 털기로 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많았다"면서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거래내역까지 요구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여야 간사는 26일 이런 내용의 한 후보자 청문회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최종 파행한 26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내각 후보자들을 향해 "국민이 보기에 민망한 수준"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윤석열 내각 후보자의 의혹이야말로 당선인이 말하는 '부패 완판'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고문료로 20억을 받았다는데 어떤 일을 했냐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2장짜리가 왔다"며 "한 후보자가 4년 4개월간 4건의 간담회 등 행사에만 참석하고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1000만 명의 국민이 한 후보자의 특권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불공정, 전관예우의 황제"라고 쏘아 붙였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미국 풀브라이트재단 장학금 특혜 의혹,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등을 언급하며 "특권과 특혜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인철 후보자의 도덕성, 교육에 대한 철학은 이미 낙제점"이라며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금이라도 '셀프 사퇴' 하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 눈높이로 보면 두 자녀 모두 편입학으로 의대에 입학시킨 전국 유일의 아빠일 뿐"이라며 낙마를 염두에 둔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수사 능력 부재를 입증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온 제 식구 감싸기에 부패함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기 무섭게 삼권분립과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며 "윤로남불, 한로남불이자 검찰 왕국의 서곡이 아닐까 두렵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의원총회…검찰개혁법안 처리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86차 의원총회에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28~29일 이틀간 경선

6·1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는 28~29일 실시된다.

경선은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투표로 치러지며, 권리당원(50%)·안심번호선거인단인 일반인(50%) 투표를 합산한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28~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는 29일 하루 동안 치른다.

여수·순천·구례·완도·장흥·강진 선거구는 2차 경선이 치러지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

2차 경선 방법은 1차 경선과 같고 날짜는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5월 4~5일, 일반인 투표는 5월 5일이다.

무안군수의 경우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5월 5~6일, 안심번호선거인단은 5월 6일이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첫날 총 5차례 강제적으로 받는 전화투표를 하고, 둘째 날에는 자발적으로 거는 전화투표로 이뤄진다.

일반인 투표는 2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발표된다. 2차 경선을 한 지역은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결과가 발표된다. 무안군은 7일 오전 11시 발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청소년 정책 발표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6일 청소년이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한 4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비, 문화체험비, 학습비 등 통합적 복합지원이 가능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겠다"면서 "청소년증을 활용해 청소년 무상교통을 지원하고, 공적 신분증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조례에 따라 현재 16세부터 만 18세 이하까지 무상지원하는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광주시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도 책임지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최치현 "광산구 사이좋은 공동체 도시로 만들겠다"

최치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민선8기 광산구를 '사이좋은 공동체 도시'로 가꿔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핵심과제로 ▲민관산학 거버넌스 '광산 미래 100년 위원회' 구성 ▲구청장 직속 거버넌스 지원·홍보 전담부서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는 광주공항 이전, 송정역 일대 개발 등 광산 현안을 거버넌스로 해법을 찾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사이좋은 공동체 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자치와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천,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지역 자원화 등의 7대 공약도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네거티브 중단 정책 경쟁 호소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잡음과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가 정책 경쟁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투명한 공약과 정책, 자신 장점을 살린 선거 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지역에 퍼졌던 탈락설이 경선 후보로 선정된 뒤 사라졌는데, 4인 경선을 앞두고 다시 흑색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면서 "비방과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경선에 임하며, 완도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성숙한 선거 문화를 조성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 후보는 아울러 "제2의 청해진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내놓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보당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 달라"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들 호소

6·1 지방선거 진보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들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1당 독점 구조가 깨지고 새로운 견제 세력이 광주시의회에 등장해야 한다"며 "진보당이 소수 견제 세력을 넘어 광주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교육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육아 경험 경력 인정 ▲생활임금 1만 920원 지급 ▲청소년 100원 버스 등을 공약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당 득표수로 의석이 배분되는 광역의원(광주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김미화 전남대병원 간호사, 김선옥 광주전남건설기계본부 사무국장을 후보로 냈다.

광주시의원 후보는 ▲강승철(서구2)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해정(서구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산 1지회장 ▲소재섭(북구4) 전 북구의원 ▲백승선(광산구1) 민주노총광주본부 대외협력국장 ▲김승철(광산구2) 진보당 금호타이어 현장위원회 위원장 ▲최경미(광산구4) 전 광산구의회 의원 등이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중앙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신용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일 시 : 2022. 5. 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일 시 : 2022. 4. 2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